

고질병 능력 공천... 유권자 '답답' 공약 검증 제대로 못해 '묻지마 투표' 부를 수도

'도대체 누가 나오는지, 공약도 모 르는데 뭘 보고 투표합니까.' 4·27 재·보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일부 정당이 아직까지 후보를 확정하지 않는 등 능력 공천으로 일관하면서 유권자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각 정당의 능력 공천은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을 비교하고 검증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결국 정당만 보고 찍으라는 '묻지마 투표'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각 정당과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까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4·27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화순군수 재선거, 목포 시의원 재선거에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공천을 확정할 후보자가 단

한 명도 없다. 민주당이 사실상 '무공천' 결정을 내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민주당의 당무위원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예비후보만 6명이 난립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일부 인사들이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더 좋은 후보 물색을 위해 아직까지 후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사실상 '무공천' 결정을 내린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민주당의 당무위원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민주당 예비후보만 6명이 난립하는 등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일부 인사들이 출마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더 좋은 후보 물색을 위해 아직까지 후보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경선을 진행 중이다. 최종 후보는 오는 4월말 결정될 예정이다. 후보 등록을 불과 1주일 가량 앞둔 시점이다. 지역을 대표할 선량을 선택하는 일에 유권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고작 20여 일 남짓에 그친 셈이다. 반면, 민주당과 진보신당은 일찌감치 후보를 정하고 활발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광양 매화마을 화사한 봄

낮기온이 21도까지 오른 지난 31일 광양시 다압면 매화마을을 찾은 상춘객들이 향기롭게 피어난 매화를 감상하며 봄 기운을 만끽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알림
광주일보 창사 59주년 기념 뮤지컬

광화문 연가

4월 22~24일 광주문화회관 대극장

'난 아직 모르잖아요', '붉은 노을',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 '옛사랑' (故) 이영훈 작곡가의 히트곡들로 꾸며지는 창작 뮤지컬 '광화문 연가'가 광주를 찾아옵니다. 광주일보사가 올해 창사 59주년을 맞아 주최하는 '광화문 연가'는 이영훈씨가 직접 대본을 썼으며 그의 히트곡 30여곡으로 엮어진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로 세 남녀의 가슴 시린 사랑과 이별, 그리움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번 작품에는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의 송창의, 가수 윤도현과 리사, '비스트'의 양요섭 등이 출연하며 '헤트윅'의 이지나가 연출을 맡는 등 한국 뮤지컬계 최고 스타들이 함께 합니다. 옛사랑의 아련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 줄 '광화문 연가'에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날짜=4월22(금)~24(일)
- 장소=광주문화회관 대극장
- 주최=광주일보사, KBC
- 주관=KBC미디어그룹 영무엔터테인먼트
- 예매처=인터파크, 쇼티켓
- 문의=062-220-0541

전라도가 역시 좋다 흡연을 낮고 스트레스 덜 받아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음주·흡연 등 건강위험요인이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은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최근 전국 보건소를 통해 '2010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 광주지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도 45.8%로 낮은 편에 속했다. 반면, 강원과 제주는 각각 52.7%, 52.3%로 가장 높게 나와 '골초'가 많은 지역으로 꼽혔다. 시·군·구 별로는 전남 보성군과 곡성이 40.2%로 22개 시·군 중 가장 낮았고 영암(41.1%), 담양(43.4%) 등도 낮은 지역

으로 조사됐다. 강진군은 52.1%로 22개 시·군 중 가장 높았고 고흥도 51.1%로 높았다. 광주에서는 동구가 47.3%로 가장 높았고 남구(43.6%), 광산구(43.5%), 북구(42.8%), 서구(42.0%) 등의 순이었다.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전남이 48.0%로 가장 낮았고 광주는 58.6%로 울산(60.4%), 경남(59.9%), 부산(59.6%), 강원(57.4%) 등과 함께 상위권을 형성했다. 최소 7잔(여성은 5잔) 이상인 마시는 술자리가 주 2회 이상인 '고위

험 음주율'은 전남(10.8%), 광주(12.2%), 울산(12.4%)은 낮은 반면, 강원(18.9%), 경남(18.1%), 제주(17.4%)는 높았다. 광주에서는 북구가 15.1%로 비교적 높았고 광산구는 9.2%로 가장 낮았다. 정신건강 측면에서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사람의 비율인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남(23.0%)이 가장 낮았고 인천(30.6%), 대전(30.1%), 서울(29.5%) 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영남권도 과학벨트 분산배치 요구

5일 특별법 발효...빠르면 6월 입지 선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조성사업이 올 상반기 국내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올 들어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대선공약에 따라 충청권으로 예정돼 있던 과학벨트의 예초 입지가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동남권 신공원에 이어 정부와 지역간, 지역과 지역간 또 다른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광주시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오는 5일 '국제과학비즈

니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된다. 이어 7월에는 과학벨트 조성위원회가 구성돼 과학벨트 입지 선정작업이 본격화되며, 이르면 오는 6월에는 과학벨트 입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과학벨트 입지로 낙점됐던 충청권은 일부 정치권에서 '내륙 분산배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 을 보이자 '대선공약 파기'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동남권 신공원에 백지화에 충격을 받은 영남권은 광주

시와 보조를 맞춰 과학벨트 분산배치를 요구하고 나서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특정지역에 과학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또다시 갈등을 초래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장점에 따라 과학벨트를 분산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내륙 삼각벨트' 주장에 대한 공감대가 영남권과 정치권에서 확산하고 있다"며 "국가백년대계 차원에서 과학벨트는 내륙 삼각벨트 배치가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광주일보 창사 59주년을 축하합니다.

예술작품으로 빛나는 이태리의 정통 명품가구
광주에서 만나십시오!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탈리아 명품가구-뮤제오는 이탈리아 현지에서 수개월의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 만날수 있는 장인들의 정통 수공예 기법으로 만든 가구로 소품 하나하나 유럽의 고성을 그대로 옮긴듯한 뮤제오만의 차별화된 컨셉과 트렌드로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기품있는 실재를 연출하십시오!

MUSEO **뮤제오** |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쇼룸전시
광주광역시 서구 회정동 180-3 (메리어트 웨딩홀 건너편)
TEL 062-369-9100 FAX 369-9101